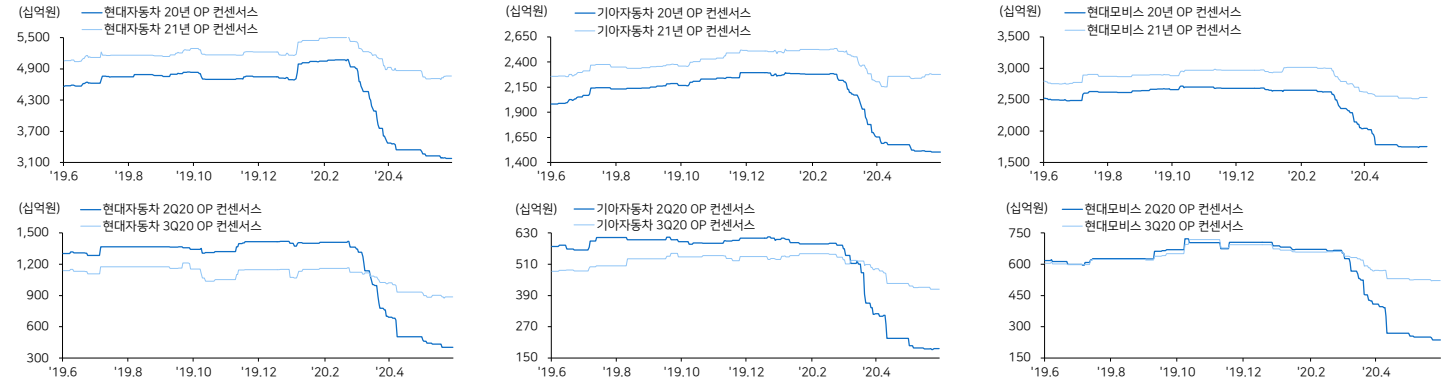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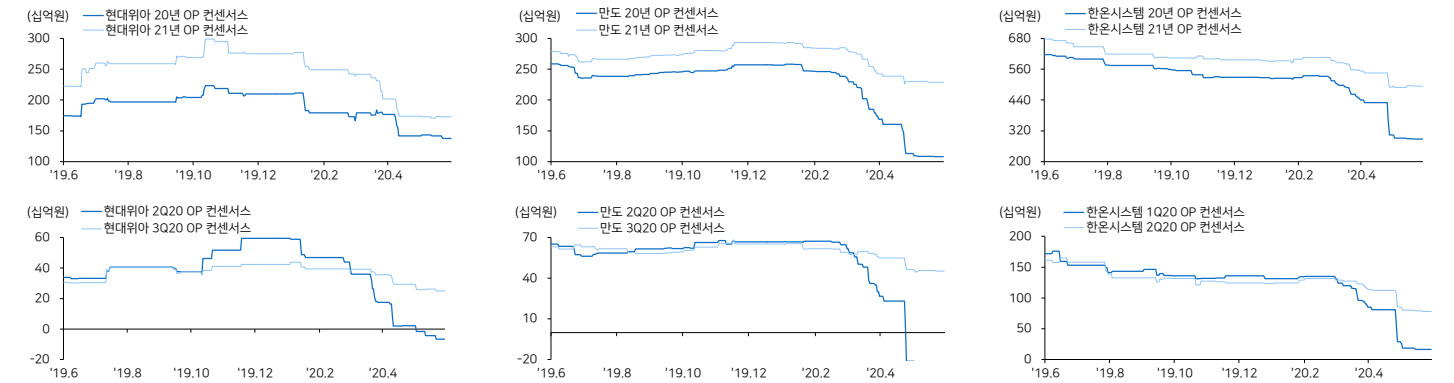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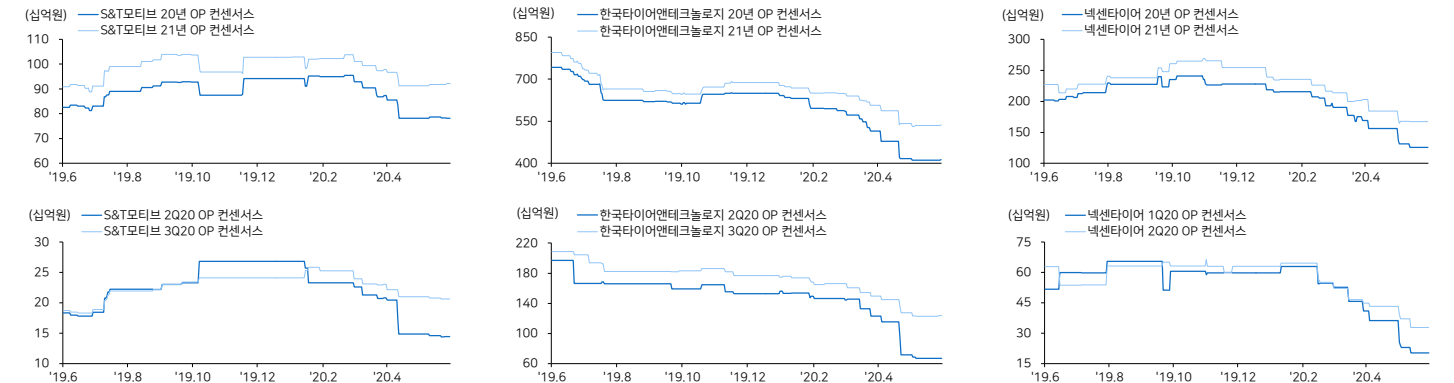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모비스 이어 현대차도 '중간배당 안한다' (매일경제)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도 올해 중간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8년 이후 꾸준히 배당성향을 높여 왔던 현대차그룹이 코로나19 앞에서 올해는 주주 환원정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s://bit.ly/3fm2DHs>

현대차, 수소연료 선박 스타트업 '빈센' 지원한다 (뉴스웨이)

현대자동차가 국내 친환경 선박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수소 경제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가 상업 선박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 관련 지원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30HoZPL>

'크레타 7인승 준비' 현대차, 인도공장 생산라인 강화. 5일간 가동 중단 (M오토데일리)

현대차 인도공장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수를 실시, 새로운 로봇과 자동화 시설을 구축, 인도 첸나이 공장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공장 내 로봇 등 자동차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기보수에 들어감.
<https://bit.ly/3e8DH7Y>

SUV · 친환경차로 바뀐 韓자동차 수출 (매일경제)

지난달 자동차 수출실적이 17년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가 버팀목 역할을 나타남. 특히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올해도 코나가 수출왕에 이름을 올림.
<https://bit.ly/2YAoT90>

3세대 주력 전기차...폭스바겐은 세단, GM은 픽업, 현대차는? (한국경제)

현대차와 VW GM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둘 3세대 전기차 모델을 공개. 각 회사들은 주력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형태의 전기를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는 SUV, VW는 소형 세단을, GM은 픽업트럭을 내놓을 계획.
<https://bit.ly/2N1kgAi>

현대차 '펠리세이드', 중고차 가격 방어 플랫폼 (전자신문)

현대자동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펠리세이드'가 중고차 시장에서 높은 가격방어를 보이고 있음. 비슷한 시기 출시된 차량보다 잔존가치가 높다는 설명.
<https://bit.ly/2Y4oeHR>

정부 · 금융권 · 업계,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3천억원 규모 특별보증 실시' (파이낸셜신문)

정부 재정, 완성차 업체, 지자체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 중소 · 중견 업체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함.
<https://bit.ly/3e8XHPo>

포스코케미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개발...'최대 600km 주행' (한국경제TV)

포스코케미칼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NCM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상업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힘. 이는 기존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에 Si를 첨가해 제조하는 것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소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150267&t=N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